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5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재생콘텐츠과	담당자 • 개항장재생팀장 김인식 ☎458-7336 • 담당자 오윤석 ☎458-73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개항장의 새로운 역사산책이 시작된다

- 25일,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 내년 말까지, 산책로, 문화공간, 웨딩촬영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 -

인천시의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송학동1가 8-3번지 일원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보에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사업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인천시민애(애)집, 이음1977 건물 등과 연계해 인근지역 사유지(유희지)를 매입해 역사산책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12월까지 1,960.2㎡ 면적에 총 74억 원(토지보상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책로(정원), 쉼터, 문화공간, 웨딩촬영장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2020년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21년에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신규 결정됐으며,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됐다.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 아이콘인 개항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개항장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색다른 경험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치도〉



< 현장사진 >

